

# 지역 문화 · 관광 진흥 적극 나선다

전북문화관광재단, 4대 경영목표 · 25개 추진과제 설정 · 사업비 편성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2021년 4대 경영목표와 25개 추진과제(사업)를 설정,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3일 전했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우선 예술지원 강화, 문화예술 · 교육 향유 확대, 문화관광 활성화, 책임경영 실현 등 4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2021년 종합경영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총 사업비 202억6,300만원으로 문화예술 147억8,600만원, 문화교육 31억2,300만원, 문화관광 23억5,4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조직개편과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 지역 문화 · 관광 진흥을 위한 책임경영과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재단은 오는 4월 경영기획본부 · 문화예술진흥본부 · 관광진흥본부 등 성과중심의 3본부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실무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특히, 경영기획본부 기획홍보팀은 재단의 중점과제인 '순수한 전통문화'를 조성하는 TF팀 운영과 기획 · 홍보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부서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4월까지 신규 직원 15명을 채용해 정원 대비 현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그간 사무 공간으로 활용한 전북예술회관 3층 사무실은 현재 인력으로도 부족고, 사무환경이 열악해 인력이 충원될 경우 3분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라감영빌딩 4층으로 이전해 새롭게 운영한다.

그동안 활용했던 전북예술회관은 공연기획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전시실 등을 재배치해 지역예술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이하 브랜드공연)은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9억6,000만원을 투입해 연간 70회를 진행한다.

그간 브랜드공연은 관객 평가면에서 만족도는 높았지만, 내용면에서 작품 분위기가 무거워 관광 상품으로서 아쉽다는 평가와 공연장에 적합한 형식의 공연 개발 그리고 젊은 창작자 중심의 새로운 형식의 공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2021년 4대 경영목표와 25개 추진과제를 설정, 사업비를 편성했다. (한옥자민활동 아간상설공연 모습)

이에 재단은 종합평가, 전문가 의견, 작품개발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70분 이내의 판소리 기반의 융합공연으로 작품을 변경하며, 역량 있는 '젊은 예술인' 중심의 공동창작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거점형 창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아트플랫폼 신규 사업에도 5억원을 투입한다. 14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유휴 공간 공모를 통해 1개소를 선정해 뉴미디어 아트 중심의 창작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등 6개 사업에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 쿼터제를 도입해 균등한 지역 분배와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향유권을 확대한다.

전라북도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예술병원과 업무교류 협약(2020년 10월)을 통해 예술인 검진비와 치료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예술인고용보장제도도 도내 예술 직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은 조직 개편을 통해 관광진흥본부를 신설하고 관광진흥팀, 관광사업팀, 관광마케팅팀 등 3팀으로 구성해 지역관광플랫폼과

전라북도 관광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관광 거점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기능을 확대하며, 비대면 관광, 소규모 여행, 마이스 산업 등 관광 환경변화에 맞춰 전북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전라북도 관광디지털 혁신체계 구축은 지역문화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북형 문화융합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나아가 글로벌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신규 사업으로 8,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책기반 강화, 공모전 개최, 콘텐츠 발굴 등 3개 사업을 운영해 전라북도 '체험 1번지'로서 지역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스 시설 현황을 조사해 도내 관광 자원과 마이스 인프라를 홍보하는 마이스 전문가 초청 토크쇼 및 설명회 개최 사업(1,400만원)과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전라북도 마이스 산업과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는 마이스 전문 전시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사업(3,500만원)을 진행해 도 · 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멈춤 없는 문화예술과 관광을 지원하고, 소외받는 지역 없이 14개 시 · 군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지역의 플랫폼으로서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김제 '아리랑문화마을' 대표 관광지 조성 최선

한국관광공사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 도내 유일 선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한국관광공사(전북지사장 박정웅)가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은 지역관광 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유망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발굴해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아리랑문화마을'은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을 다루는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의 배경을 재현해 놓은 곳이다. 홍보관, 주재소, 면사무소, 우체국, 정미소, 내촌·외리마을, 이민자거숙, 하얼빈역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족의 수난과 투쟁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관광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김제시와 한국관광공사(전북지사)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구축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여행코스 개발 ▲관광 상품화 마케팅 지원 ▲마이스 산업 등 관광 환경변화에 맞춰 전북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전라북도 관광디지털 혁신체계 구축은 지역문화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북형 문화융합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나아가 글로벌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신규 사업으로 8,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책기반 강화, 공모전 개최, 콘텐츠 발굴 등 3개 사업을 운영해 전라북도 '체험 1번지'로서 지역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스 시설 현황을 조사해 도내 관광 자원과 마이스 인프라를 홍보하는 마이스 전문가 초청 토크쇼 및 설명회 개최 사업(1,400만원)과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전라북도 마이스 산업과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는 마이스 전문 전시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사업(3,500만원)을 진행해 도 · 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멈춤 없는 문화예술과 관광을 지원하고, 소외받는 지역 없이 14개 시 · 군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지역의 플랫폼으로서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아리랑문화마을은 대표적인 언택트 관광지이자 우리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단위의 관광 명소로 거듭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웅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은 "외부 관광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블라인드 심사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김제시가 선정됐으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아리랑문화마을'을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고향으로

문화재청 · 서울경찰청, 도난 문화재 34점 회수

조선시대 삼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1점이 도난된 지 30여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문화재청은 도난문화재 관련 첩보를 접수하고,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전북유형문화재14호) 1점 등 모두 34점의 도난 문화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석씨원류 목판은 석가의 일대기를 글과 그림으로 새긴 것으로, 조선 성종 17년(1486)에 왕명으로 제작됐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

이후 사명대사가 일본에 갔다가 그곳에서 1질을 구해 인조 26년(1648) 최서동과 해운법사가 이를 본보기로 하여 다시 간행했다. 이때 새긴 판각이 바로 오늘날까지 고창 선운사에 보관되어 오고 있는 석씨원류 판각 목판이다.

이 목판은 원래 103매 409판이었으나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현재는 62매 124판만 문화재로 지정해 보관 · 관리돼 오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도난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은 모두 43점으로, 이번엔 1점을 회수했다.

각판의 앞뒷면에 모두 판각되어 있는데 하단에는 석씨원류 본문이 새겨져 있으며 상단에는 그 내용의 그림이 조각되어 있다. 판각의 크기는 가로 39.0cm, 세로 29.5cm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씨원류' 목판은 선운사본(禪雲寺本)과 불암사본(佛庵寺本) 두 가지 판본이 전해지는데, 선운사본은 상단

에 그림이 있고 하단에 본문을 배치한 상도하문(上圖下文)형식으로, 선운사 석씨원류의 판각은 조선시대 삼화의 걸작 중 걸작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 미술사 특히, 판화의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자료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중한 문화재가 제자리에서 그 가치에 맞는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청 관계자는 "소중한 고창의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남은 목판도 무사히 고향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과 선운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석씨원류 목판복원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망실 및 파손된 목판 52매를 복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장수 한누리영화관 개관기념 무료 시사회 개최

장수 한누리영화관이 오랜 휴관을 끝낸 개관 기념으로 무료 시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무료 시사회에서는 한누리영화관 휴관으로 놓쳤던 화제작 중 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살아있다'와 정우성, 곽도원 주연의 '강철비 2:정상회담'이 선정돼 상영된다.

시사회는 4~5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영화당 하루 4회씩 상영된다.

무료티켓은 상영시간 1시간 전부터 한누리영화관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1인 최대 2매까지 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은 좌석간 거리두기로 운영되며, 무알콜음료 외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 한누리영화관(063-352-7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제7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2021년 2월 16일(화)~17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 ▶ 주최 - 전주매일 신문
- ▶ 주관 - 전라북도스키협회
- ▶ 후원 - 전라북도,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 ▶ 대회 신청 문의 - 063)288-9700 (전주매일 본사)

\*\*이 행사는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